

# 예산 삭감 사흘만에 68억 부활요청 어처구니 없는 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과다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가 삭감한 일부 예산을 다시 증액해 주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공문까지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기)에 공문을 보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설명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과 합의에 따라 부득이 증액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증액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39억원 중 29억원 ▲남구청사 고효율 냉난방기사

업 22억5000만원 전액 ▲남구청사 LED 조명보급 사업 7억5000만원 전액 ▲축산물유통시설 사업 9억7000만원 전액 등 총 68억7000만원이다. 모두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상임위원장 동의를 있으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6일 계수조정 때 증액여부가 타당한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자체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부활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상임위에서

는 '수수방관'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예결위에 예산 부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스스로 부실한 예산심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으로 예결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관례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상임위 심사 자체를 무력화시킨 꼴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 소속 의원은 이 같은 증액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삭감 이유를 예결위에 제출한 상태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주일 앞... 박이석 광주선관위 사무처장

# “선거운동 기간 아니면 SNS 의견 개선 가능”

## 선거일 투표 인증샷·특정 후보 지지 못해 선거법 위반 철저조사... 공명선거 정착 노력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내년에는 4월 총선과 함께 12월 대선이 겹치어 치러지게 된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 등을 적절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박이석 사무처장을 만나 내년 선거관리 준비 등을 들어왔다.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실시된다. 과거 선거와 달리 진점은.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일반인이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반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선관위 단독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과거 선거에 비해 공명선거가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돈·음식물 제공에 대한 기대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의식이 보다 성숙 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돈 선거 근절 등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이용해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주요 일정은.  
▲우선 13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해당 시·군·구 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다. 그리고 내년 3월22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인 내년 3월29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후보자들은 돈·음식물 선거가 아닌 자신의 자질과 능력,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지지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년 총선은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축제가 되도록 하면 하는 바람이다.

유권자들은 지인과 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한 후보자 선택이 아닌 선거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능력과 자질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한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비판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그 잘못을 가려 줘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한해기자 choi@kwangju.co.kr



2011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회  
:011. 12. 5 (월) 14:00 전라남도 장흥군, Jktm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 기여 감사패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왼쪽 여섯번째)가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11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결과 보고회'에서 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9개 의료기관에 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불황에 '복권 열풍'... 정부 판매중단 권고

## 올 매출 제한선 넘는 3조1천억 예상

불황에도 복권이 불타나게 팔려 위험 수위가 임박해지자 사행산업 감독 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이런 판매 추세를 보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

둔 상태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이다.

판매량이 한도를 넘으면 2009년 사

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 매출 총량이 초과한다.

사감위는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벌칙을 준다.

복권위는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한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연합뉴스

# 농어업인에 1% 저리 410억 융자

## 전남도 15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 연이율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운용 사업비는 총 410억원으로 대상자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신지식화농민,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화농민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올해까지 연 2%였으나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1%로 인하한다.

융자금 상환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지식화농민,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유동·수출업자 등이다.

전남도는 내년 1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

# “민주당은 현안예산 확보 최선을”

## 광주시민단체 총연합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5일 광주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무효투쟁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에 한·미 FTA 비준을 무효로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

은 3년 연속 새해 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따른 지역경제의 폐쇄화에 책임을 지고, 한·미 FTA 비준 무효화 투쟁과 병행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5·18 민주화운동을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삭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했다”며 “중·고등 역사교과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을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복장이 전문점

#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룬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반분부터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